

韓國科學院 學位 수여식 盛大

國際水準의 優秀한 頭腦

理學碩士 50名, 工學碩士 86名 輩出

韓國科學院(院長 趙淳卓)은 2월 21일 第4回學位授與式을 갖고 136명에게 碩士學位를 수여했다.

科學院 강당에서 거행된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崔亨燮科學技術處長官, 趙淳卓科學院長을 비롯한 科學技術界人士와 졸업생 가족 친지들 500여명이 碩學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날 학위를 받은 136명은 工學碩士가 86명, 理學碩士가 50명으로, 이를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17명

산업공학과 공학석사 16명

생물공학과 이학석사 13명

수학 및 물리학과

응용수학전공 이학석사 11명

응용물리전공 이학석사 11명

재료공학과 공학석사 16명

전기 및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22명

화학 및 화학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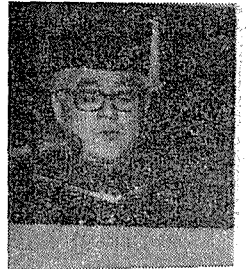
응용화학전공 이학석사 15명

화학공학전공 공학석사 15명

한편 이들 碩士課程 졸업생 136명중 14명은 政府機關에 53명은 研究機關에 36명은 企業體에 19명은 敎育機關에 취업하게 되며 나머지 15명은 박사학위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다.

이날 趙淳卓院長은 式辭를 통해 科學技術분야의 精緻한 이론과 실제적인 이론을 겸비한 우수한 理工系人才養成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碩士學位課程은 당초 염원했던 대로 완전히 정착화되어 네번째로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고 전제하면서 科學院 본래의 목표는 「世界水準의 우수한 理工系大學院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여지껏 쌓여진 소중한 運營經驗과 研究

力量을 토대로 하여 施設의 大幅의인 擴充을 기하고 시급히 博士課程과 專門技術課程도 튼튼하게 定着化되도록 摸索하며 敎育과 研究의 內實에 拍車를 가하여 國際의인 科學頭腦를 효율적이고도 신축성있게 육성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할것」임을 다짐했다.



<조순탁 원장>

趙院長은 100억弗 수출달성에 科學技術者들의 숨은 노력이 상당한 비중으로 뒷받침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장차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나갈 이들에게 부과된 과업이 막중하므로 국가 産業構造의 高度化에 이바지하겠다는 精神的인 姿勢를 굳건히 유지한다면 이 사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격려했다.

끝으로 조원장은 졸업생들에게 「첫째 국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아 수학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국가 발전에 能動的으로 이바지해야 한다는 使命感을 갖고 일할 것」. 둘째, 「科學하는 가운데에서 참다운 人生의 길을 發見하는 餘유있는 科學精神의 涵養에 부단히 노력할 것, 셋째, 産學協同의 橋樑役이 되어 줄 것」등을 당부했다.

한편 崔亨燮科學技術處長官은 式辭를 통해 소정의 과정을 履修하고 碩士學位를 받게된 卒業生들과 보람된 결실이 맺어지도록 이들을 보살피고 지도해준 院長, 이하 敎授, 學父母들의 勞苦를 致賀하고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갖고 학위를 받는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崔長官은 이미 과학원에서 輩出된 人材들이 우리나라의 科學技術과 産業發展에 커다란 기여

과학원 학위수여식

를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눈부신 발전을 계속하고 세계속으로 뻗어가는 우리 국가와 사회는 바로 이들과 같은 有能한 젊은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崔長官은 이어 先進高度産業國家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國際水準級の 우수한 과학기술두뇌들을 많이 양성하고 정부와 산업계 대학이 혼연일체 참여하는 거국적인 技術開發體制를 갖추어 산업기술의 향상발전에 박차를 가할것과 고도한 기술 및 頭腦集約産業을 戰略的으로 육성하고 상품뿐만 아니라 우리의 技術과 Plant의 海外進출을 적극촉진하자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바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건이라고 말하고 이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이끌어 나갈 設計者며 개척자 기수인 이들 졸업생들에게 선배과학인으로서 과학기술전문가가 되기 전에 폭넓은 敎養과 修練을 쌓아서 존경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하며 또 生涯勉學이라는 확고한 각오와 결의아래 學門을 계속할 것을 당부했다.

식이 끝난후 석사학위를 받은 136명의 석학들은 가족들의 축하 속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역군으로써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받은 백단기씨는 소감을 묻자 「어서빨리 사회에 나가서 본인이 맡은바해야 할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밖에는 없다」고 말문을 열며 「앞으로 정부기관인 상공부르다가게되어 어떻게하면 그들과 조화있게 일을 수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덧붙인다. 백군은 3월부터 特許廳에서 전자공학분야의 特許審査業務를 맡게 된다고 한다.

다음은 학생회장을 지냈던 백단기군과의 일문일답내용이다.

—연구를 계속한다거나 외국에 유학할 생각은 없는가—

일단 사회에 나가 일을 해보고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과학원에서 박사과정코 오스를 밟겠다.

그리고 외국유학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학원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대학원으로서 과학원을 택한 이유는—

군대문제, 공부문제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주고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입학해서 공부를 해보니 과학원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으며 과연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타대학에서 과학원에 배푸는 많은 혜택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만을 표명하기전에 우선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과학원을 세계수준의 과학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립했다고 보는데 타대학도 과학원 수준이 된다면 과학원은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면 과학원은 있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하나의 학문의 전당이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학원에 들어오고자 하는 후배학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과학원에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마음은 떨쳐버리고 우선 들어와서 생활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몇해전만해도 과학하는 사람들은 대학만 졸업하면 외국으로 유학가는 것이 소위 공부한다는 사람들의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선생님과 외국에 뉘지 않는 시설에 학생들의 열의만 있다면 외국어디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알찬 교육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 과학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가 누구보다 더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20~30년 후에 우리나라 국가사회에서이 바지할 만한 長이 되는 사람은 전부 우리들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소위 우리들이 국가발전의 초석을 닦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학교당국에 바라는 것은—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기 때문에 건물이라든가 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려면 시설확장이 급선무라고 본다.